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추석 가정예배

인도자 : 가족 중

예배의기원 인도자

전능하신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배를 통해 분명히 확인하게 하여주소서. 한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온 가족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다 같이

1절.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절.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대표기도 가족 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추석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을 나누어 이 자리가 풍성하게 하시고, 슬픈 일은 함께 품고 위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족의 마음에 주님의 빛이 비취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시편 37편 3~6절 인도자

3.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 네 의를 빛 같이 나타 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설 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인도자

오늘은 민족 고유의 추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말씀과 기도로 세워나가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이 되면 서로를 격려하고 복을 받기를 빌어주며 덕담하는 아름다운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진정한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시편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때 비로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실 뿐 아니라 성실함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기뻐하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오직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그 여호와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때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입술 가운데 이런 고백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2022년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청주제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13번길 15 (구. 남문로 1가 154번지)

(043) 256 - 3817 ~ 8

셋째,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란 결국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시편 37편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그 분은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22년도 어느덧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해를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한 해를 보람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에 바로 서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우리 삶 전체를 맡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301장(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같이

1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행통하게 하시네

2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절.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 기도 문 다 같이

가족별 나눔의 시간 ... 감사한 것, 미안한 것, 기도제목 등... 다 같이